

어간말 위치의 후두음화 현상에 대하여

박종희 · 권병로(군산대)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ㅎ종성 체언의 발생 |
| 2. 어간말 위치의 음성적 특징 | 5. 어간말의 유기음화 |
| 3. 짜내기 소리(creaky voice)의 음운화 | 6. 맺음말 |

1. 머리말

일반적으로 운율어 경계(prosodic boundary)의 어말음은 성문 아래의 기압이 급격히 하강하고 기본 진동수가 내려가 성문이 닫히고 무성화하게 된다. 이때 비정상적인 성문 닫힘과 불규칙적인 성대의 약한 진동이 일어나면 수의 적이고 점진적인 짜내기 소리(creaky voice)가 이음적으로 발생된다. 차츰 이 소리의 사용 빈도수가 높아지고 규칙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청자는 이를 경직 소리(stiff voice) 또는 성문 파열음(glottal stop)으로 음운화하게 된다. 이 현상을 성문음화(glottalization) 또는 후두음화(laryngealization)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음운화(phonologization) 단계 이후에는 운율 영역의 경계표지로서 성문 파열음이 범주적으로 첨가된다. 이러한 현상은 중세국어 문헌의 표기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종래 사잇소리 표기로 인식되어 왔던 예들은 모두가 질서 속에 포함된다. 그리하여 복합명사 사이의 단어-말 그리고 구-말, 문

-말에 ‘ㅅ’이 표기될 수 있었다. 물론 이때의 ‘ㅅ’은 성문 파열음과 변이음의 대응을 이룬다. 또한 운율 영역의 경계를 이루는 어말 모음도 위와 같은 동인에 의해 무성화(devoiced)하여 같은 행동을 보인다.

운율 영역 경계에서의 성문음화 및 무성화 현상은 어간말 경계로까지 그 영역을 유추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하여 이 글에서는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 및 일부 방언 자료에 나타나는 어간말의 경음화 및 유기음화 현상을 비정상적인 성문음의 효과(nonmodal effects)에 관련시켜 고찰하고자 한다. “나꼬”(癒) “실꼬”(載) 등은 경음화한 예이고, “나코” “실코” 등은 유기음화한 예이다. 전자는 어간말 경계에서 성문음화가 일어난 예이고, 후자는 음운화 단계 이후에 발생한 유기음화가 표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운화한 이후에는 성문음화 및 무성화의 인지적 단서를 크게 하기 위해 성문 아래의 압력을 증대시키고 성문 크기를 확장하는 의도적인 조음 동작이 일어난다. 화자에 의한 수동적인 성문음화에서 능동적인 성문음화로 바뀌어진 결과 유기음화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하여 전복방언에 자주 나타나는 “(집을) 짓코는”은 어간말 경계에서 성문 파열음이 음운화한 이후에 인지적 단서를 강화하기 위해 유기음화를 경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문 파열음의 인지적 단서를 크게 만드는 손쉬운 방법은 성문 마찰음으로(ㅎ→ㅎ) 실현시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어간말 경계에서 유기음화가 실현되면 이보다 상위 단위인 단어말 경계에서는 더욱 가능해진다. 이는 통시적으로도 어간말 경계에서보다 단어말 경계에서 먼저 유기음화가 발생했음을 말해 준다. 이런 맥락에서 중세국어의 소위 ㅎ특수명사는 단어말 경계에서 발생한 유기음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鼻)+ㅣ”(고히)로부터 “공+ㅣ”로 재분석되어 ㅎ특수명사로 불리는 “공”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유기음화와 관련된 몇 가지 현상은 어말음 탈락과 더불어 결국 어말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성적인 약화 현상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말 경계에서 발생하는 무성화, 성문음화, 유기음화 현상은 같은 동인을 가지므로 이들을 아울러 후두음화라 칭할 수 있다.

2. 어간말 위치의 음성적 특징

어말 위치에서는 여러 종류의 자음 대립이 중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자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단서(cue)가 결여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특히 CV 전이 및 파열 개방의 결여는 자음의 위치 자질 및 후음의 명시에 관한 단서들을 모호하게 만든다. 이러한 특징 이외에도 어말 위치에서는 음의 진폭이 급격히 약해지고 무성화되므로 후두 상부 조음상의 강도에도 불구하고 그 인지력은 매우 약하게 된다. 인지의 어려움은 후두 자질의 중화 또는 자음 위치 자질의 중화를 발생시켜 중국에는 탈구강음화와 탈락을 일으키게 된다. 어말음의 탈락을 결정짓는 것은 조음의 문체이기보다 인지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고 본다(Steriede 1997, Barnes 2006: 114).

어말 위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음성적인 경향은 무성화(devoicing)이다. 이 무성화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F0의 하강과 더불어 성문 아래 압력의 가파른 하강에 그 음성적인 근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가정되어 왔다(Dauer 1980; Gordon 1998). 성문 아래 압력의 감소는 성문 사이의 압력 하강을 일으키지 못해 성대가 진동하지 못하게 된다.¹⁾ 이러한 상황은 수동적 무성화와 유사하다(Ladefoged and Maddieson 1996: 49). 이 수동적 무성화는 몇몇 음성적 과정의 결과로서 발생되는데, 이는 성문 확장과 같은 의도된 실행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능동적 무성화와는 다른 것이다.

Gordon(1998)은 어말 및 어중 위치에서 발생하는 모음의 무성화 현상을 범언어적으로 관찰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일반성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어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음의 무성화는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어말 모음의 무성화를 함축한다.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한 언어에서 단어-말 모음의 무성화는 구-말 모음의 무성화를 함축한다. 그 역은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구-말 모음만이 무성화를 경험하는 언어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는 단어-말 음절이 아닌 오직 구-말 음절에서 성문 아래의 압력이 극도로 하강하는 음성적 사실로부터 직접 나타난

1) Hock(1999)에서도, 어말 및 구말 위치는 약화 환경이어서 무성음화, 모음 탈락 등의 음운 과정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남을 제시하고 있다.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통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말 위치에서 먼저 발생하여 뒤이어 구-내부의 단어-말 모음으로 확대되어 간 것을 의미한다.

어말 무성화는 대부분 수의적(optional)으로 또는 점진적(gradient)으로 일어난다. 그리하여 무성화의 정도는 완전히 유성화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무성화한 것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이루며 발생한다. 따라서 무성화의 단순한 기능은 강조 및 선행하는 자음, 발화 속도 등과 같은 음성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무성화한 모음의 많은 예들이 유성적인 모음과 표면상의 대립을 이루기도 하고 또한 그 체계 내의 다른 음운 과정들과 상호 작용을 이루기 때문에 분명한 음운론적인 지위를 갖기도 한다(Gordon 1998: 96). 이러한 사실로부터 다음 사항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어말 모음의 무성화가 음성적으로 동기화된 위치(구-말)로부터 음성적으로 동기화되지 않은 위치(단어-말)로 일반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초기에 가졌던 점진적 성격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아 음운화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음운화(phonologization)’은 이전에 점진적이고 음성적 과정이었던 것이 이제는 범주적으로 음운론에 반영되어진 것을 지시하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이다(Barnese 2006: 117, 120). 이러한 견지에서, 무성화의 음운화가 의미하는 바는 이전에 [+voice]로 명시되었던 것이 무성성으로 부적합(less than ideal)하게 반복적으로 실현되어 이제는 [-voice]로 명시된 자질로 대체되어 실제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만일 음성적 환경의 자동적인 결과로서 발생한 무성화가 음운화된 이후, 발화-말 음절의 목표음이 말 모음의 부분적 무성화를 포함한다면, 모든 발화-말 모음들은 성문 아래 압력의 정도에 상관없이 상당히 많은 무성화를 실현시키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무성화의 실행은 이제 그 음성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변이를 이루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성문 아래의 더욱 커진 압력(increased subglottal pressure)을 가진 음절에서는 더욱 큰 동요를 실현시켜 인지적으로 더욱 뚜렷하게 실현된다. 이러한 차이는 수동적 무성화(passive devoicing)와 능동적 무성화(active devoicing)를 구별 짓는 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Ladefoged and Maddieson 1996: 46) 볼 수 있다. 이 수동적 무성화는 점진적으로 무성화하는데, 구-말 위치에서 성대가 더 이상 진동할 수 없을 때까지

성문 아래 압력이 떨어진다. 다른 한편, 음운화 이후에 발생하는 능동적인 무성화는 관련된 모음의 전부 혹은 부분을 유목적으로 무성화한 것이어서, 의도적인 성문 확장을 일으킨다. 능동적인 성문 확장의 조음 동작을 이룸으로써 이제 무성화는 더 이상 성문 아래의 낮은 압력의 기능에 의한 것만이 아닌 것이다. 이제 성문 아래 압력의 증대는 비음운화된 경우처럼 무성화의 실행을 방해하지 않고, 몇몇 언어의 강제 모음과 같이 무성화의 인지적 강도를 높이는데 실제로 이용된다.

3. 짜내기 소리(creaky voice)의 음운화

성문의 진동 방식은 순차적인 다섯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진동이 발생할 때 성문이 최대로 열리는 기식 소리(breathy voice, murmur)로부터 이완 소리(slack voice), 정상 소리(modal voice), 경직 소리(stiff voice), 그리고 성문이 최대로 협착되는 짜내기 소리(creaky voice, laryngealization)까지 순서적으로 배열을 이룬다. 또한 이러한 발성 유형의 차이들은 성문을 통과하는 기류의 속도에서도 순차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²⁾ 성문이 닫히면 기류의 흐름은 정지된다. 어간말 경계에서 기류의 흐름이 거의 정지되면 자연적으로 무성화가 발생하게 되어 짜내기 소리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³⁾

음운화 이전에 낮은 진폭(amplitude)을 가진 음들은 어말 경계에서 더욱 급격하게 진폭을 하강한다. 이러한 진폭의 변이와 더불어 넓은 영역의 불규칙적인 성대 진동은 짜내기(creaky) 소리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리하여 그 모음의 맨 끝부분은 휴지 앞에서 무성화 한다. 낮은 진폭, 비정상적 발성(non-modal phonation) 및 무성화 현상은 구-말의 음절에서 성문 아래의 압력이 낮기 때

-
- 2) 일반적으로 성문 아래 압력이 약 8cm H₂O이고 성문이 열리는 동안의 기류 속도가 1000 ml/s인 성인 남자의 경우, 기식 소리의 기류 속도는 거의 500 ml/s이며, 이완 소리는 약 250ml/s, 정상 소리는 약 120ml/s, 경직 소리는 약 100ml/s 그리고 짜내기 소리는 그 이하이다 (Ladefoged and Maddieson 1996: 50).
 - 3) 짜내기 소리의 발성(creaky phonation)은 성대가 완전히 닫히지지만 그 일부분이 충분히 열려 성대 진동이 일어난 음으로 기술하였다(Gordon and Ladefoged 2001: 386). 또한 후두 근육이 상당히 긴장하여 성문이 닫히는데 성문 아래의 압력이 일정하게 주어지면, 성문 사이를 통과하는 기류의 속도가 아주 느려진다고 보았다(Ladefoged and Maddieson 1996: 53).

문에 발생한 것이다.⁴⁾

구-말 위치에서 성문 아래 압력이 하강(구-말 F_0 의 하강)함에 따라 (phrase-final subglottal pressure drop) 야기된 무성화와 더불어, 어말 음절의 범언어적인 또 다른 특징(salient feature)은 성문음화(glottalization) 또는 후두음화(laryngealization)이다(Barnes 2006: 125). 이때의 성문음화는 휴지 앞에서(prepausal) 발생하는 짜내기 소리(creakiness)가 음운화(phonologization)하여 발생한 것인데, 구-말(phrase-final) 및 구-초(phrase-initial)에서 실현되는 이음적인 성문음화(glottalization)는 운율적 구성성분(prosodic constituency)을 지시하는 단서(cues)가 되기도 한다(Barnes 2006: 127-130).

저조(low-tone)에서의 짜내기 소리(creakiness)는 사실상 성문 하위 압력이 낮아져 F_0 가 하강된 결과여서, 성대는 성문 하위의 공동을 아주 쉽게 폐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문 하위의 압력이 증대될 경우에만 기류가 간헐적으로 흐르게 된다. 간헐적으로 기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느리고 불규칙적인 성대 진동이 짜내기 소리를 발생시킨다고 본 것이다. 그리하여 구-말 성문음화(glottalization)가 출현한 것으로 가정한다(Silverman 1997).

이와 유사하게 Slifka어의 구-말 위치에서 성문 아래의 압력이 점진적으로 내려가면 성문음화가 일어나는데, 다른 한편으로 기류가 증가하면 닫혀진 성대가 점진적으로 개방하면서 진동되어 모음이 산출된다고 한다(Hanson et al. 2001). 성문 아래 압력의 하강, 성대의 이완화 및 성문의 열림 등이 어울어지면 불규칙적인 성문 진동이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저조(low tone) 환경에서의 성문음화도 이와 동일한 기원을 가져 그 고저 단계(pitch level)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성문 아래 압력의 감소와 성대의 이완에 의해 결과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설명은 러시아어 구-말 위치에서 발생하는 이음적인 성문음화(phrase-final allophonic glottalization)에 대한 설명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한다(Barnes 2006: 130). 게다가 이 분석은 어말 모음에서 발생하는 짜내기 소리(creaky)로부터 기음화 및 무성화로의 전이 현상을 무리 없이 설명해 준다.

4) 이러한 어말 모음의 무성화는 어말 무성화(final devoicing), 성문음화(glottalization), 유기음화(aspiration), 영역 말음의 생략(clipping) 또는 단음화(shortening)와 같은 패턴 중의 하나로 직접 음운화된다(Barnes 2006: 123, 125).

그러므로 어말 무성화와 어말 성문음화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음성적 원인 즉, 성문 아래 압력의 하강과 후두 동작의 점진적인 소멸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이 현상들은 운율 영역 또는 구-말의 음성적인 약화 현상에 따라 그 돌들림(promonence)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음운화한 상태에서는 조음적인 약화 현상은 고려되지 않는다.

초기의 음운형에서 운율 영역 및 구-말의 성문음화는 음성적으로 우발적인 점진적(gradient) 결과로 나타난 것이어서 후두 및 치경의 상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때의 성문음화는 조음의 독자적인 목표음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적인 성문음화가 일으킨 성문의 불규칙적인 진동에 의해 발생한 음향적 특징은 짜내기 소리(creaky)의 발생 및 본질적인 성문음화(불규칙적인 성대 진동, F0의 하강, 낮아진 진폭, 스펙트럼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음향적 자질과 아주 흡사하다. 만일 운율 영역 및 구-말의 음절에서 발생한 점진적인 성문음화가 규칙적인 현상으로 변하고 충분한 돌들림을 갖게 되면, 우발적이 아닌 의도된 목표음으로 청자가 재해석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가능해진다. 그리하여 이러한 재해석의 결과, 이제 성문음화는 외재적이고 독자적인 목표음이 되어 성문을 짝 닫는 엄밀한 의미의 성문화음으로 실현된다.⁵⁾

의도된 무성화(planned devoicing)는 그 음성적 환경에 따라 변이적으로 나타나는데, 성문 하위 압력이 증가된 음절에서의 무성화는 더 큰 기류의 동요(turbulence)를 수반하여 인지적으로 더욱 뚜렷이(salient) 나타난다(Barnese 2006: 121). 본질적으로 이러한 차이는 수동적(passive) 무성화와 능동적(active) 무성화로 구별된다(Ladefoged and Maddieson 1996: 49). 수동적 무성화는 구 말 위치에서 유성성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때까지 성문 하위 압력을 하강시켜 점진적으로 무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성대는 진동을 멈추는데 이는 성대가 능동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한편 능동적인 무성화는 음운화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의도적인 성문 확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능동적인 성문 확장으로 인해 무성화는 더 이상

5) 이 시점에서 강제 또는 강조에 결부된 성문 아래 압력의 상승은 짜내기 소리(creakiness)의 인지적 강도 및 성문 폐쇄를 증대시킬 것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음운화(phonologized)가 반드시 음소화(phonemicized)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일본의 동경 방언에 나타나는 강조적인 성문 과열음은 비변별적인 것이어서 아주 빈번하게 쓰인다고 한다(Barnes 2006: 130).

성문 하위의 낮은 압력에 의한 기능이 아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몇몇 언어의 강제 모음에 결부된 성문 하위 압력의 증가는 무성화의 인지적 강도를 높이는데 이용되고 있다.

능동적인 성문 확장 방식으로 어말 무성화가 음운화되는 또 다른 증거는 Afar어의 소위 “h-삼입” 현상을 들 수 있다. Bliese(1976: 160)가 기술한 바와 같이, 강세된 단어말 모음은 구-내부에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올 때 [h]가 뒤에 나타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외적 연결 시 동화규칙이 야기하는 경계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두 단어의 분리를 유지하기 위한 수의적인 수단으로 규정하였다. 그렇지만 일정한 형태론적 환경에서 “h-삼입”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이제 이 과정은 본래의 음성적 근원으로부터 이탈되어 이제는 형태론적 조건의 지배를 받게 된다.

만일 무성화의 길이가 충분하고 자주 발생하게 되면, 구-말 모음이 장음화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남긴 음향적 증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청자에 의해 쉽게 무성화(devoicing)로 재분석되어 음운화(phonologization)가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구 말 모음의 목표 조음은 이제 능동적인 무성화를 지향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무성성은 더 이상 성문 하위 압력이 일으킨 기능이 아니어서 목표 조음은 음성적으로 야기된 변이를 갖게 된다. 이때 성문 아래의 압력이 높아지면, 이 무성성이 방해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욱 많은 진동 기류가 성문을 통과하게 된다. Gordon의 관찰에 의하면, 무성 모음은 그와 비교되는 유성 모음보다 일반적으로 길이가 짧다고 한다. 사실상 성문 아래 압력이 거의 없는 경우에 성문을 확장시키는 능동적인 조음 동작은 성문을 통과하는 기류를 증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구 말(phrase-final) 모음의 길이를 더욱 짧게 만든다(Barnes 2006: 124).

국어는 어두 위치에서 세 종류의 무성 파열음 즉, 유기음(풀, 탈 등), 경유기성 평음(불, 달 등), 비유기성 경음(뿔, 딸 등)을 나타낸다. 비유기성 경음은 다른 두 음과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이는데, 그 차이는 경직 소리(stiff voice)의 위치와 관련된 후두 작용 때문에 나타난다고 한다(Dart 1987). 그러므로 평음보다 경음 뒤에서 성대 진동이 시작될 때 더 높은 진동수(F0)를 나타낸다. 더욱이 경음 뒤의 성대 진동은 평음과 비교할 때 고조파(harmonics)로서 매우

강렬하게 실현되는데, 이는 증가된 성대의 긴장 때문으로 그 부분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 또한 발화초 위치에서 유기음은 과열음의 폐쇄 기간 동안 가장 큰 성문 열림을 가지며, 평음은 그 중간, 경음은 가장 작은 성문 열림을 가진다고 한다(Kagaya 1974). 그리고 조음적 개방과 관련된 후두 동작의 시간성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즉, 유기음의 경우 조음적 개방은 일반적으로 성문의 최대 열림 순간에 발생하며, 평음의 경우는 조음적 개방 시 성문이 상당히 열려 있을지라도 폐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좁혀진다. 반면에 경음의 폐쇄 기간 동안에는 개방 전에 성대가 닫히게 되며, 또한 경음의 폐쇄 기간은 평음보다 훨씬 길다. 이외에도 경음에서는 소릿길 벽이 더욱 긴장되고 근육의 힘도 더욱 빨리 커진다고 한다(Ladefoged and Maddieson 1996: 57). 이러한 음성적 특징에 의해 국어의 체언말 경계 및 어간말 경계에서 발생하는 짜내기 소리는 청자 및 언어습득자에 의해 경직 소리(stiff voice)로 음운화된다고 할 수 있다.

4. ㅎ종성 체언의 발생

운율어 경계, 다시 말해서 체언말 경계에서 발달한 ‘ㅎ’가 유기음화를 보이는 예는 제주방언에서 흔히 발견된다(현용준 1957). 물론 이 경우의 ‘ㅎ’는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운율어 경계에서의 무성화가 경직 소리로 음운화되고 다시 인지적 단서를 강화시키기 위해 범주적으로 발생한 음이다. 이러한 예들은 대부분 모음이나 유성자음 ㄴ, ㄹ, ㄷ 아래에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무성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1)ㄱ. 모음 아래: 뒤ㅎ집>뒤침(後家), 뒤ㅎ거름>뒤커름(退步), 드르ㅎ개>드르케(野犬), 드르ㅎ밭>드르판(野田), 불미ㅎ집>불미침(대장간), 처가ㅎ집>처가침(妻家), 마ㅎ브름>마폭름(南風), 그지게ㅎ저녁>그지게저녁(再昨夜), 내(川)ㅎ데레>내테레(내에로), 뒤ㅎ데레>뒤테레(뒤에로), 우ㅎ데레>우테레(위에로), ㅎ나ㅎ도>ㅎ나토(하나토), 나ㅎ도>나토(年歲도), 바르ㅎ잡으레 간다.>바르잡으레 간다(해산물 채취하러 간다).

ㄴ. ㄴ 아래: 안ㅎ집>안침(內側家), 안ㅎ밖>안팎(內外), 산ㅎ뚝>산뚝(山豚), 언
ㅎ지낙>언치낙(昨宵), 안ㅎ테레>안테레(안예로)

ㄷ. ㄹ 아래: 돌ㅎ꺾를>돌꺾를(石粉), 물ㅎ괴기>물괴기(馬肉), 질ㅎ거름>질커
름(路步), 밀ㅎ꺾를>밀꺾를(밀가루), 알ㅎ가름>알카름(下洞), 물ㅎ뚝>물뚝
(水豚), 물ㅎ것>물컷, 모물ㅎ밭>모물밭(蕎麥田), 녹물ㅎ국>녹물국(나물국),
술ㅎ도막>술토막(살토막), 꺾술ㅎ밭>꺾술밭(秋田), 먹을ㅎ것>먹을커(食物),
매날ㅎ저낙>매날쳐낙(每日宵), 지들ㅎ것>지들컷(불 땀 물건), 물ㅎ병>물병
(水瓶), 술ㅎ집>술집(酒幕), 맬ㅎ것>맬컷(멜치것), 들ㅎ곰 날ㅎ곰 잇이>들곰
날곰 잇이(치밀하게), 술ㅎ지다>술치다(살쩌다)

ㄹ. ㅁ 아래: 짐ㅎ배>짐페(背繩, 짐지는 배), 암ㅎ배>암페(배승의 일종), 암ㅎ
뚝>암뚝(牝豚), 암ㅎ득>암득(암탉), 암ㅎ빙애기>암핑애기(암핑아리), 암ㅎ돌
쳐귀>암톨쳐귀, 소곰ㅎ국>소곰국, 암ㅎ것>암컷, 줌ㅎ막>줍막(바가지)

ㅁ. ㅇ 아래: 낭ㅎ도막>낭토막(나무토막), 낭ㅎ질>낭칠(나무 오르기), 빵ㅎ집>
빵집

위 예들에 보이는 유기음화는 체언말 경계에서 발생한 이음적인 짜내기 소리가 점진적으로, 그리고 수의적으로 성문 파열음으로 음운화한 이후에 이 능동적인 성문 파열음의 인지적 단서를 강화시킨 결과 성문 마찰음이 된 연유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과정은 ‘불미질>불미질(평음), 불미간>불미간(성문음화), 불미집>불미칩(유기음화)’ 및 ‘물질>물질(潛水), 물질>물절(水路), 물것>물컷’에서처럼 그 시간적 층위의 변화형이 혼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유기음화한 예들은 음운화 단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유기음화를 발생시킨 ‘ㅎ’의 출현을 종래의 연구에서는 ‘ㅎ조사’라 하여 ‘ㅎ’을 조사의 일부로 파악하기도 했으나, 이는 ‘바랄(海)’과 같이 본래 ㅎ조사를 취하지 않는 것들이(예: 바르래, 바르리라 등) 후대에 왜 ㅎ조사를 취하게 되었는지(예: 바다훔, 바다히 등)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이와 상반되게 ‘ㅎ중성체언’으로 보기도 하였다. ‘ㅎ’을 조사의 초성으로 보는 대신 체언의 중성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 또한 ‘하늘, 하늬, 하늬, 하늬’와 같은 네 가지 어형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ㅎ삽요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선행어 말음인 유성 음을 일단 폐쇄하고 뒤엎 소리를 똑똑히 들어내려는 언어심리에서 ‘ㅎ’가 삽요된 것으로 보는 방법이다(현용준 1957). 이 또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유독 ‘ㅎ’만이 삽입되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체언말 경계의 무성화 과정에서 나타난 짜내기 소리가 청자에 의해 경직 소리로 음운화한 이후, 다시 인지적 단서를 강화하려는 작용에 의해 생겨난 음운현상이 표기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음화와 유기음화의 교체 내지는 그 상관관계가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중세국어의 소위 ㅎ중성 체언이 대부분 모음이나 유성자음으로 끝나는 특성을 지녔다고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분포상의 특징이 아니라, 체언말 경계에서 발생한 ‘ㅎ’의 축약 여부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체언말 자음이 공명음이거나 모음인 경우에는 ‘ㅎ’와의 축약이 불가능하여 ‘ㅎ’는 체언과 구별되어 그 자체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표기상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체언말 자음과 축약하게 되면 어간형의 변화를 일으켜 재구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꽃(花)>꽃’ ‘근(末)>끝’으로 재구조화한 것은 ‘꽃+이>꽃+ㅎ+이>고치’ ‘근+이>근+ㅎ+이>그티’에서 각각 ‘꽃+이’ ‘근+이’로 재분석된 결과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꽃’, ‘끝’과 같은 어형의 발생은 체언말에 본디 ‘ㅎ’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운울어 경계 즉, 단어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후두음의 조음적 특징이 야기시킨 변화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전 시기에 ㅎ말음을 가지지 않았던 체언들 뒤에 모음 조사가 연결되면 ‘ㅎ’가 나타나는 예들이 18세기 말의 자료에서 발견된다(오종갑 1986, 정영호 2006).

(2) 초히라(무원록 1:19b), 발홀(중덕 하:33a), 가힌(가례 도:8a), 步히며(무원록 1:22b), 상해(호남운음 7b), 썩히(훈서 2:10a), 庫히(무원록 1:56), 보히(무원록 3:53), 너년희 물어디거든(명년도료)(번역박통사, 상:10)

위의 예들에 대해 김동소(1982: 2)에서는 ‘庫히’의 ‘ㅎ’를 유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았고, 홍운표(1994: 239-240)에서는 유성적 환경에서 ㅎ가 탈락

되어 가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과도교정의 표기로 해석한다. 또한 오종갑(1986: 14) 및 정영호(2006: 50)에서는 체언말 모음의 폐음화(절음화)로 인한 후두긴장이 표기에 ‘ㅎ’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들도 체언말 경계의 무성화에 의해 ‘ㅎ’가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庫’와 조사 ‘의’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이음적인 짜내기 소리(무성화)가 청자에 의해 음운화된 이후 인지적 단서를 높이려는 의도적인 조음에 의해 ‘ㅎ’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18세기 후반에 흔히 나타나는 ‘곶히’ ‘곶히야’ ‘집흘’ ‘콩닙호로’ ‘똥호야’ ‘북녀희’ 등의 음절말 유기음 표기례(홍윤표 1986: 130)에 보이는 ‘ㅎ’도 체언말 경계의 무성화 현상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래의 유기음이 가졌던 ‘ㅎ’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구성 요소들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본래 체언형의 정체성을 유지하여 의미 전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중세국어의 ㅎ중성 체언에 /ŋ/로 대응되는 방언형들이 존재한다(이기문 1968:223). ‘땅(地):땅, 바당:바당(제주방언), 나랑:나랑(함경방언), 니망:니망(함경방언), 농(繩):농제기/농이(평안방언)’ 이러한 대응을 /h>/ŋ/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들의 발생은 앞에서 살펴온 ‘ㅎ’ 대신에 ‘ㅇ’이 첨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세국어에서 ‘ㅇ’(/ŋ/)과 ‘ㅎ’(/h/)은 자연부류를 이루는 후음(guttural)으로서 변이음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방언에 따른 첨가음 선택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ㅎ중성 체언의 ‘ㅎ’이 체언 어간의 일부로 존재했다면 ‘ㅇ’과의 대체를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ㅎ중성 체언의 /h/은 /k/에서 발달한 것으로 보아 왔다. 그 근거로 『삼국사기』의 ‘石山縣本百濟珍惡山’의 ‘珍惡’이 *turak’ 혹은 *torak’으로 해독되고 『안민가』의 ‘國惡支’이 *나라악/*나락으로 해독된 것을 들었다. 그러나 k>h의 음성학적 동기가 불분명하고 유성음 뒤에서만 h이 나타나므로, 이 글에서는 어말의 *기 탈락된 후 운울어 경계 표시의 후두음이 삽입된 다음에 ㅎ으로 음운화된 것이 재분석되어 ㅎ중성 체언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

한자어계 ㅎ말음 체언의 경우에 있어서도 ㅎ말음이 어간말의 k>h를 반영하거나 또는 k의 약화 단계인 ɣ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ʔ/ 단계에 있었던 근대한어의 입성 운미를 ‘ㅎ’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체언 어간의 경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바로

/ʌ/이 경계를 지시하게 되어 ‘ㅎ’으로 음운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입성 /-p, -t/와 달리 /-k/는 소실될 때, 핵모음 뒤에서 입성 운미가 모음 운미(j, w)로 바뀌기 때문에⁶⁾ 혼동을 피하기 위해 체언 어간의 경계가 모음 운미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생긴다. 그리하여 음운화된 경계표시 ‘ㅎ’이 모음 운미 뒤에서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입성 /-k/를 가진 체언들은 입성 /-p, -t/를 가진 체언과 달리 많은 체언말 ‘ㅎ’을 실현시킨다.

/-k/와는 무관한 본래부터 陰聲韻을 가졌던 음들 중에서 모음운미(j, w)를 가진 것들(봉(裸), 송(沼), 송(藪) 등)과 이에 합류 및 유추된 것들(공(庫), 충(醋), 농(鱧/櫓), 농(羅) 등)은 체언말 ‘ㅎ’을 보인다. 이들은 체언 경계가 쉽게 결정되는 無韻尾字들과 달리 음운화된 경계표시 ‘ㅎ’을 실현시킴을 알 수 있다. 특히 음절말 모음 운미 w는 국어의 음절구조에 맞지 않으므로 경계표시에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을 것이다.

5. 어간말 경계의 유기음화

‘고-’(烹)의 어간말 경계에서 짜내기 소리가 발생하면 화자는 이를 경직 소리로 음운화한다. 이 음운화된 경직 소리가 뒤에 오는 어미의 첫 장애음을 경음화하면 ‘고찌’가 된다.

- (3) 고-(烹): 고치/고찌, 곧는, 고으니~고:니, 고아~과:~고와
 딸-(從): 딸코/딸꼬, 따르니, 따라

이때 어간말 경계의 인지적 단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여 성문 열림을 크게 하고 성문 아래 호기의 흐름을 빠르게 하면 ‘고치’가 실현된다. ‘곧는’이 나타나는 이유는 인지적 단서가 강화되어 삽입된 ‘ㅎ’에 의해 ‘곧는’이 출력되었기 때문이다. ‘공-’(烹)가 2모라 음절구조를 가진다고 보면, 두 번째 모라

6) 이런 현상은 通攝, 江攝, 宕攝, 梗攝, 曾攝에서 일어난 것인데, 通攝, 江攝, 宕攝은 k→w/Vtu __ (Vtu는 通攝, 江攝, 宕攝의 핵모음), 梗攝, 曾攝은 k→j/Vg __ (Vg는 梗攝과 曾攝의 핵모음)에서와 같이 핵모음 뒤에서 입성 운미가 모음 운미로 바뀌었다(薛鳳生 1990: 122-129/이준환 2009: 30)

는 위치마디를 결여한 ‘ㅎ’에 연결되지 않고 그 다음의 ‘ㄴ’에 연결된 구조로 바뀌어진다. 모라의 지배를 받는 ‘ㄴ’은 겹자음화하여(줄고 2010) ‘ㄴ ㄴ’이 되므로 ‘곤느’이 발생하게 된다. ‘고으니’에서 ‘으’가 수의적으로 탈락하는 이유는 어간 경계 ‘고-’ 뒤에 나타나는 짜내기 소리의 음운화 여부가 수의적 현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음운화된 경우에는 ‘으’ 모음의 시발에 경직 소리가 수반되기 때문에 탈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음은 세 가지 시발 방법 즉, **stopped, even, breathed**으로 시발되는데, 이 경우는 맨 처음 방법으로 조음된 것이다(Heffner 1975: 166). ‘고이’와 ‘과:’의 교체형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고와’의 경우는 모음의 전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형대(formant)의 모습이 활음과 유사하여 이를 활음으로 인지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딸꼬/코(從)’의 예도 위와 동일하게 설명된다. ‘딸꼬’는 주로 음운화 단계의 상태가, 그리고 ‘딸코’는 음운화 이후의 상태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르니’ ‘따라’는 어간말 자음 ‘ㄴ’이 단순하게 연음된 경우이다.7)

다음으로 불규칙 용언 어간말 경계의 음운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ㄷ불규칙 용언 어간의 활용 양상을 본다.

(4) ① 묻다(問)	ㄱ. 물꼬~무꼬	무르니	무러도
	ㄴ. 물꼬	무르니	무러도
	ㄷ. 물코	무르니	무러도
② 들다(聞)	ㄱ. 들꼬~드꼬	드르니	드러도
	ㄴ. 들꼬	드르니	드러도
	ㄷ. 들코	드르니	드러도
③ 신다(載)	ㄱ. 시꼬	시르니	시러도
	ㄴ. 실꼬	시르니	시러도
	ㄷ. 실코	시르니	시러도
④ 걷다(步)	ㄱ. 걸꼬	거르니	거러도
	ㄴ. 걸꼬	거르니	거러
	ㄷ. 걸코	거르니	거러

(4①ㄱ)의 예들은 음절말 ‘ㄷ’의 불파화 및 어간말 경계(문-)의 짜내기 소리

7) 재분석에 의해 복수기저형 ‘궁-/고ㅎ-’와 ‘뿔-/딸ㅎ-’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비판적 견해 및 아래 논의에서 제시되는 불규칙 용언 어간 활용형에 대한 예들은 정영호(2009) 참조.

가 경직 소리로 음운화한 결과 자음 어미의 첫소리가 경음화한 것이다. ‘무꼬’는 동화와 축약 현상에 의해 ‘물꼬>묵꼬>무꼬’가 된 것이다. 모음 어미가 올 경우에는 어간말 자음 ‘ㄷ’이 ‘ㄹ’로 변해 연음되었음을 보인다. (4①ㄴ)의 예들은 어간말 ‘ㄷ’이 ‘ㄹ’로 재구조화한 이후의 활용 양상이다. 어간말 경계(물-)의 음운현상은 앞의 설명과 동일하다. 그리하여 ‘물꼬’가 된다. 음운화 이후 인지적 단서가 강화되면 기식음이 발생하여 유기음화하여 ‘물꼬’가 도출된 것임을 볼 수 있다8).

- (5) ① 낫다(癒) ㄱ. 낫꼬~나꼬, 나오니 나아도
 ㄴ. 나꼬 나오니 나아도
- ② 붓다(腫) ㄱ. 부꼬 부어도/뵈:도/부:도
 ㄴ. 부꼬 버:도/뵈:도

(5ㄱ)을 설명하기 위해 어간의 기저형을 ‘X?’로 설정하게 되면 자음 어미 앞에서 ‘?→h’와 같은 규칙을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9) 또한 ‘Xt- + C’ ‘Xh- + (i)V’의 복수기저형을 설정한다 해도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s불규칙을 보이는 용언들의 역사적인 발달 과정에서 어간말의 ‘s’이 모음 어미 앞에서 ‘h’으로 재구조화하는 이유와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5ㄴ)의 ‘나꼬’(강원철원, 인제, 양양, 전북무주, 전남완도), ‘부꼬’(충남연기, 경북월성, 영해, 영일)의 경우에는 단일기저형 ‘Xh-’를 설정해야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낱-’, ‘붓-’으로 어간 재구조화가 일어나 새로운 어형을 갖게 되었다. 의미충돌을 일으키면서까지(‘낱-’ 產) s불규칙을 보이

8) 기저형에 ‘ㅎ’의 설정을 비판한 정영호(2009)에서는 (4ㄱ)의 어간을 복수기저형 Xt- + C, Xh- +(i)V로 설정하여 설명하는데, 그럴 경우 h의 존재 및 복수기저형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또한 ‘ㅎ→ㅎ’규칙의 공시적 실재성 문제도 제기된다.

9) 최명옥(1985/1998: 93)에서는 ‘X(t-∅)-’ 또는 ‘X?’-, 김성규(1988: 30)에서는 ‘X(t-?)’ 또는 ‘X(t-i)-’, 배주채(1989: 56)에서는 단일기저형 ‘X?’이 설정되었다. 현대국어에서 용언 어간의 기저형에 ?(ㅎ)을 설정하는 연구는 다양하다. ‘ㅎ’을 음소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엄태수 1993, 김경아 1990/200), 형태음소로 보는 견해(김완진 1972, 배주채 1989, 유필재 2000), 음소로 보는 견해(이익섭 1972, 최명옥 1978, 1980, 1982, 1985, 1993), 김성규(1988), 곽충구(1994), 김정우(1994), 정인호(1995), 김현(2001), 김봉국(2002), 이진호(2002), 조규태(2004), 음성자질로 보는 견해(박창원 1984), ‘음소-(변이음소)-음소’의 중간 단계인 변이음소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이들의 출전에 대해서는 정영호(2009: 114)의 참고문헌을 참조.

는 모든 예들이 ‘ㅎ’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¹⁰⁾ 이 글에서는 복수기저형 또는 기저형의 차이에 의한 설명과 달리 어간 기저형이 ‘낫-’이면 ‘낫꼬~나꼬’형이 그리고 이 어간이 ‘나-’로 재구조화하면 ‘나꼬’ 또는 ‘나코’형이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운율적인 영역의 어간말 경계를 드러내기 위해 비정상적인 성대진동(nonmodal voice)이 기능할 때 음운화 이전 단계에서는 ‘나꼬’형이 그리고 음운화 이후 단계에서는 ‘나코’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려는 것이다.

- (6) ① 눅다(馱) ㄱ. 눅찌 누위도
 ㄴ. 누찌 누우마/누우모 누우도/누어도
 ㄷ. 누치
- ② 돕다(助) ㄱ. 돕꼬 도웅께/도우니까
 ㄴ. 도웁꼬, 도웅께
 도우고, 도우마/도우모 도아도
- ③ 굽다(灸) ㄱ. 굽찌 구우니~구으니~구:니 구위~구어~귀:
 ㄴ. 구찌 구으니~구우니~구:니 구어~귀:
 ㄷ. 구치 구으니~구우니~구:니 구어~귀:
 굽꼬, 꾸꾸
- ④ 맵다(辛) ㄱ. 맵꼬 매투니 매투도
 ㄴ. 맵웁꼬 매투니 매투도

(6ㄱ)의 어간 기저형을 ‘Xp- + C ~ Xu- + (i)V’로 설정한다면, 어간 재구조화가 일어난 (6ㄴ)의 어간 기저형은 ‘Xup- + C ~ Xu- + (i)V’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구찌, 구으니, 구어’와 같은 활용형에서는 그 어간 기저형이 ‘Xt- + C’ ~ Xh- + (i)V’로 설정된다. 만일 이러한 기저형 설정이 타당하다면, 자음 어미 앞에서의 세 기저형 ‘Xp-’, ‘Xup-’, ‘Xt-’에서 어떤 유연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누치’(전북김제, 충남예산, 공주, 강원정선), ‘구치’(전북익산, 김제, 무주)의 활용형을 위해서는 그 어간 기저형을 이번에는 단일기저형 ‘Xh-’를 설정하게 된다. ㅂ불규칙 용언의 어간 말음 ‘ㅂ’이 ‘ㅎ’로 단일화되는 방향으로

10) 지역 방언 연구에서 ‘장-’(作), ‘싫-’(戢), ‘걸-’(步)을 기저형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최전승(2008) 참조.

진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ㄷ불규칙 용언 어간 말음의 ‘ㄷ’, ㅅ불규칙 용언의 ‘ㅅ’ 그리고 ㅂ불규칙 용언의 ‘ㅂ’이 모두 한 방향으로 즉, ‘ㅎ’로 재구조화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 설명이 녹록치 않다. 그러므로 ‘누찌’, ‘누치’형의 출현은 새로운 어간형 ‘누-지’(臥)에서 어간 경계를 지시하기 위해 짜내기 소리가 수의적, 점진적으로 기능하면 ‘누찌’형으로, 그리고 음운화 단계를 거친 후에는 그 인지적 단서가 강화되어 범주적으로 ‘누치’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나아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용언 어간말 비음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 현상도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신-다’(신발을)에서도 어간 경계를 음성적으로 드러내면 [신-따]형이 출현된다. 그러나 ‘가-ㄴ다’(길을)에서는 ‘ㄴ’과 ‘ㄷ’ 사이에 어간 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음화 대신 유성음화가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을 반영하는 몇 가지 고대소설 필사본 자료들에서 ‘ㅅ’ 변칙용언 ‘짓-’(作) 다음에 연결되는 자음 어미의 어두 폐쇄자음이 유기음화되는 표기 유형이¹¹⁾ 반복되어 출현한다.

- (7) ㄱ. 언제 밧바 옷 짓컷나(판,박.383),
 - ㄴ. 호로밤의 이 글을 짓코(99장 필사본 별춘.14ㄱ),
 - ㄷ. 농스 짓기 일삼난대(병진본 필사 박홍보.1ㄴ), 바지 짓코(동.6ㄴ), 님구 썩로 집을 짓코(동.13ㄱ), 제비 집을 직코(동.21ㄴ).

선행하는 미과음에 후속하는 유기음화 과정이 부자연스럽고, 동시에 역사적 개연성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음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7)의 예에서와 같은 음운 현상이 같은 역사적 단계에서나, 뒤따르는 시기의 다른 유형의 방언 자료, 그리고 오늘날의 공식적인 지역방언에서도 다음과 같이 반복하여 출현하고 있음을 최전승(2008)은 지적하고 있다.

- (8) ㄱ. 죄를 지코(던로력명,1895년, 1ㄴ), 일흠은 조케 지코...홍하게 지엿스니(동.3ㄱ)
 - ㄴ. 자네처럼 헛다가는 시비 듯키 쉽사오리(정정 인어대방,1882년, 3.6ㄱ)

11) 이하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예들은 최전승(2008)에서 가져 온 것이다.

- (9) 너가 지훈 꾀는(1912년, 재봉춘.177), 지훈 일흠이라(1907년, 혈의누.35), 이
 것은 하늘이 지호신 일이런가, 슝툼이 지훈 일이런가(1907년, 혈의누.12),
 잘 지훈 집(1908년, 은세계.3), 꾀를 지훈 사람(1908년, 귀의성.하.91), 원수
 적을 지훈 슝툼(1908년, 은세계.115)
- (10) ㄱ. 오늘도 머물 뵈케 업스오(초간/재간 교린수지 3.37ㄴ),
 문 뵈케 나와섯스네(초간 교린수지 4.39ㄴ), 문 박케(재간 교린수지
 4.39ㄱ), 인군 박케는(초간/재간 교린수지 3.37ㄱ)
 ㄴ. 처분은 당신케 잇스네다(초간/재간 교린수지 4.41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상호 이질적인 자료의 표기에서 추출되
 는 이와 같은 유기음화의 예들은 위의 (7)에서 ‘짓코∞짓고’와 같은 변이 형태
 들이 단순히 표기상의 잘못이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짓+고→짓코, 지코’의
 음운론적 과정은 일정한 사회언어학적 조건에 따라서 수의적이기는 하지만
 표면 음성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최전승 2008). 용언의 활용 시에
 어간말에 개입되는 ‘ㅎ’는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자료에서 ‘ㄷ’ 변칙용언에
 포함되는 ‘실-’(載)의 재구조화형 ‘실-’에도 이미 표기에 반영되어 있다.

- (11) ㄱ. 술을 실코(병오,춘.29ㄱ), 비에 실코(판,심.192), 실코 잸다가(판,박.388),
 뉘피 실코(충열,상.25ㄴ), 지물을 만이 실코(충열,상.20ㄴ), 말 짐 실키
 (병진본 필사 박홍보.2ㄴ), 슈티 우의 실코(충열,하.17ㄴ), 습신손을 실
 코 잇셔(판,퇴.276), 습신손을 실코 잇고(판,심.200)
 ㄴ. 뉘피 실고(심청,하.11ㄱ), 쥬늑등물을 슬고(삼국 4.29ㄴ), 슈티 우의
 슬고(정사본 조웅 3.34ㄴ), 거름 실고(판,변.544)∞복물 실코(판,박.346)
 ㄷ. 지물을 실꼬(길동.13ㄱ), 잔득 실꼬(판,적.486)

오늘날 전북의 하위 지역방언에서 ‘ㄷ’ 불규칙 용언은 ‘듣-’(聽) 하나에만
 국한되어 나타나고 나머지의 어간말 자음은 대부분 /-lh/로 재구조화되어 규
 칙 활용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다(최태영 1983, 김규남 1987). 또한, (11
 ㄷ)의 ‘실꼬’는 이들 지역방언에서 재구조화된 ‘실-’(載)의 활용에서 뒤따르는
 어미의 두음에 따라서 수의적으로 개입되는 경음화 현상을 알리는 것인데, 이
 러한 음성적 사실도 역시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의 표기에 변이의 형식

으로 실현되어 있다.

19세기 후기 전라방언과 현대 전라방언에서 나타나는 ㄷ불규칙 용언 활용형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어간 말음이 ‘ㄷ>ㄹㅎ’ 또는 ‘ㄷ>ㄹㅎ’로 재구조화된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ㅎ’과 ‘ㅎ’의 유래는 여전히 밝혀져 있지 않다. 또한 단순히 ‘ㄷ>ㄹ’로의 재구조화한 어형도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전라방언의 예들도 앞에서 논의한 바대로 설명하고자 한다. 즉, 구-말 경계 표시로 기능하는 무성화 작용이 어간 경계로까지 확장된 결과, 어간말 경계 위치의 짜내기 소리가 경직 소리로 음운화하면 어미의 초성 장애음이 자연스럽게 경음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어간 말음 ‘ㄷ’이 ‘ㄹㅎ’으로 재구조화했기 때문에 경음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음운화 단계 이후에 인지적 단서가 강화되면 범주적으로 유기음화가 발생하게 된다. 어간 말음 ‘ㄷ’이 ‘ㄹㅎ’으로 재구조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ㄷ불규칙 활용의 어간 말음 ‘ㄷ’은 단지 ‘ㄹ’로 재구조화했을 뿐이다. 불규칙 활용을 보이는 어간 말음 ‘ㅅ’과 ‘ㅂ’도 역시 ‘ㅎ’로 재구조화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경음화와 격음화를 일으키는 어간 경계의 ‘ㅎ’ 또는 ‘ㅎ’는 재구조화된 어간의 성분이 아니라 어간을 분명하게 유지하기 위한 언어 심리 작용에 의해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운율적 경계 표시의 무성화는 여러 방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즉, 성문 열림 및 성대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진동을 일으킬 수 없을 때, 또는 성문 파열음의 경우처럼 성대 근육이 긴장되면서 성문 열림이 닫힐 때에도 발생한다. 그리고 성문 아래의 압력이 너무 낮거나 또는 성문 위의 압력이 너무 높을 때에도 성대 진동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발성(phonation)의 차이를 고려하여 능동적 무성화(active devoicing)와 수동적 무성화(passive devoicing)를 구별하기도 한다(Ladefoged and Maddieson 1996: 49).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음운화 단계의 ‘ㅎ’은 수동적 무성화이고 음운화 이후 단계의 ‘ㅎ’의 출현은 능동적 무성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운율단위(prosodic unit)의 끝에서는 무성화(phrase-final devoicing)와 짜내기 소리되기(creaky voice)를 유지하기 위하여 음성적인 압력(phonetic pressure)이 작용하게 된다. 지속적인 성대진동을 회피하려는 이 압력에 의해 운율 경계 영역에 [성문협착]([constricted glottis]) 자질이 점진적으로 첨가하

게 된다. 운율단위가 더 커지면 이러한 점진적인 음성적 압력은 더욱 강력해진다. 그리하여 화자들이 더 큰 운율단위 끝에서 무성화하거나 또는 짜내기 소리를 점진적으로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면, 청자들은 이 음성적 압력을 음운론적 목표음으로 재해석한다(AnderBois 2009).

더 큰 운율 단위의 오른쪽 끝에서는, 일정한 정상적인 성대진동 발생(modal phonation)을 억제하려는 조음적 압력이 더 커진다. 다시 말해서 운율어 경계보다 발화 경계에서 짜내기 소리(creaky voice)의 조음적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 짜내기 소리(creaky voice)의 조음적 압력([c.g.]자질 첨가)이 음운화한 결과가 사잇소리 표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운율적 구성성분이 나타내는 경계 표시의 조음적 압력 즉, 짜내기 소리(creaky voice)의 조음적 압력은 어간말 경계 및 체언말 경계로 유추적 확대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어간말 경계 및 체언말 경계에서 무성화(devoicing)를 일으키려는 조음적 압력이 음운화하고, 그런 다음 다시 이들의 인지적 단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ㅎ’가 첨가되어 나타난 것이다(지코(作), 실코(載) 등). 따라서 운율경계의 약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유표형 유기음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6. 맺음말

어미의 첫 두음이 유기음화하는 이유를 지금까지는 대부분 어간말 기저형에 /ㅎ/을 설정하거나 복수기저형을 설정하여 그 기저형의 /ㅎ/ 때문에 발생한 유기음화 현상으로 파악하여 왔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체언말 또는 어간말의 운율적 경계에서 나타나는 음성적 특징에 그 원인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표현하기의 전달에 있어서 구 또는 절이 유연한 억양의 마디 속에서 한 묶음으로 이루어진 음성들의 흐름으로 실현될 때 가장 이상적이다. 전달의 가장 이상적인 목적은 바로 청자가 이해를 보다 잘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문장 사이의 경계, 구와 절 사이의 경계, 문법적인 단위들과 같은 구성요소들 사이의 경계에 나타나는 모든 휴지들은 청자가 그 발화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경계의 표시는 무성화에 의해 나타난다. 이때의 무성화는 후두의 조음동작에 의해 일어나는데, 그 방법은 성문음화하거나 유기음화에 의한다. 성문음화는 어간말의 약위치에서 성문 아래 기압이 급격히 낮아지면 자연적으로 성문이 닫혀 일시적으로 기류의 흐름이 정지되어 무성화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짜내기 소리는 점진적인 수의적 변이음으로 나타나지만, 사용 빈도 수가 높아지고 규칙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경직 소리로 음운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청자가 일으킨 음운화는 이제 범주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전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문-말, 구-말, 운율어-말과 같은 운율 영역 경계에 성문과열음을 범주적으로 첨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전형적인 예는 중세국어의 사잇소리 표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당시 성문과열음을 표시하는 ‘ㅎ’은 음소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했으므로 변이음적 관계에 있었던 ‘ㅅ’로 대부분 표기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음운화 단계 이후에는 이 성문과열음의 인지적 단서를 높이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때 인지적 단서를 높이기 위하여 채택되었던 방법은 성문 아래 기류의 흐름을 증대시키고 성문열림을 확장하여 유기음을 발생시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경계 표시의 심리언어학적인 단서가 경음화에서 이제는 유기음화로 바뀌게 된다. 표기에 나타나는 ‘실쇼’(戢) 형은 음운화 단계의 어간말 경계 표시가 경음으로 실현된 보기이고, 그의 대응형 ‘실쇼’는 음운화 이후 인지적 단서가 강화되어 나타난 예인 것이다. 전자의 경음화 경우는 어간 말음의 소극적 무성화로, 그리고 후자의 유기음화는 어간 말음의 능동적 무성화가 표기에 반영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싫-’로의 재구조화 과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간말 경계에서 나타나는 유기음화 현상을 기저형이나 복수기저형의 /ㅎ/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치 못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규남, 「부안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김동소, 「ㅎ말음 명사의 어원」, 『국어학논총』(공포 조규설교수화갑기 넘논문집), 형설출판사, 1982.
- 박종희·권병로, 「음절 무개의 투영과 겹자음화」, 『배달말』47, 2010.
- 여은지, 「‘?’과 어간말 후음 재구조화」, 『국어문학』52, 2012.
- 오종갑, 「폐음화와 그에 따른 음운현상」, 『한민족어문학』13, 1986.
- 유필재, 「ㄷ불규칙동사의 역사적 변화」, 『어학연구』45, 2009.
- 이기문, 「계림유사의 재검토-주로 음운사의 관점에서-」, 『동아문화』 8, 1968.
- 이준환, 「중세국어 ㅎ말음 체언의 음운론」, 『구결연구』24, 2009.
- 정승철, 「제주도 방언 ‘ㅎ’말음 용언 어간의 통시론」,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1996.
- 정영호, 「ㅎ말음의 변화와 어간 재구조화」, 『한민족어문학』49, 2006.
- 정영호, 「국어 용언어간의 기저형 ‘X(C)ㅎ-/X(C)ㅎ-」」, 『국어국문학』 151, 2009.
- 최전승, 「방언 자료 텍스트의 유형에 따른 방언 의식 실현상의 상이와 진행 중인 언어변화의 양상」, 제2회 이재 황윤석 연구 학술발표논문집, 2008.
- 최전승, 『국어사와 국어방언사와의 만남』, 2009.
- 최전승(미발표), 「불규칙 활용의 규칙화와 ‘ㅎ’에 대한 인식의 전개와 음운현상의 본질-192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음운론 기술을 중심으로-」.
- 최태영, 『방언음운론』, 형설출판사, 1983.
- 현용준, 「“ㅎ”삼요음에 대하여」, 『제주문화』1, 1957.
- 홍윤표, 『근대국어사연구 I』, 태학사, 1994.
- 홍윤표, 『근대국어의 표기법 연구』, 『민족문화연구』19, 1986.
- 홍종림, 「제주방언의 ‘ㅎ’말음 명사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19, 1998.
- AnderBois, Scott. Strong Positions and Laryngeal Features in Yukatek Maya, ROA 1021, 2009.
- Barnes, Jonathan. *Strength and Weakness at the Interface*, Mouton de

- Gruyter, Berlin · New York, 2006.
- Bliese, Loren F. *A Generative Grammar of Afar*.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1981.
- Dart, Sarah N. An Aerodynamic Study of Korean Stop Consonants: Measurements Modeling.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81, 1987.
- Dauer, Rebecca M. The Reduction of Unstressed High Vowels in Modern Greek.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Phonetics Association* 10, 1980.
- Good, Jeff(ed.). *Linguistic Universals and Language Change*, Oxford, 2008.
- Gordon, Matthew K.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Non-modal Vowels: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24, 1998.
- Hanson, Helen M., Stevens Kenneth N., Jeff Kuo Hong-Kwang, Chen Marilyn Y., Slifka Janet. Towards Models of Phonation, *Journal of Phonetics* 29, 2001.
- Heffner, R. M. S. *General Phonetics*.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Hock, Hans Henrich. 1999. Finality, Prosody, and Change. In Proceedings of LP '98: Item and order in language and speech, Osamu Fujimura, Brian D. Joseph, and Bohumil Palek(eds.), 15-30. Prague: Charles University Press(Karolinum), 1975.
- Kagaya, Ryohei. A Fiberscopic and Acoustic Study of the Korean Stops, Affricates and Fricatives. *Journal of Phonetics* 2, 1974.
- Ladefoged, Peter and Ian Maddieson. *The Sounds of the World's Language*, Blacwell, 1996.
- Silverman, Daniel. *Phasing and Recoverability*. New York and London: Garland, 1997.
- Steriade, Donca. Phonetics in Phonology: The Case of Laryngeal Neutralization. Ms., UCLA, 1997.
- Vaux, Bert and Samuels Bridget. Laryngeal Markedness and Aspiration, *Phonology* 22, 2003.

【국문초록】

현대국어의 몇몇 하위 지역방언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음운현상의 하나로서 어미의 두자음이 유기음화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서 ‘짓-고’(作), ‘실-고’(載) 등에서 어미의 ‘ㄱ’이 유기음화하여 ‘ㅋ’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전자는 ㅅ변칙의 예로서, 그리고 후자는 ㄷ변칙의 예로 알려진 것들인데, 이들 어간은 각각 ‘지-’, ‘실-’ 등으로 재구조화하였다. 새로운 어간형 경계에서도 ‘ㅎ’이 첨가되어 [지코], [실코] 등으로 실현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첨가된 ‘ㅎ’이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구-말과 같은 상위 운율단위의 경계를 구분 지으려는 현상을 근거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이 위치에서는 비정상적인 성대의 조음 동작에 의해 발성이 이루어져 짜내기 소리가 나타난다. 이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규칙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 소리는 성문폐쇄음으로 음운화하게 된다. 수의적이며 점진적으로 발생했던 경계 표지의 짜내기 소리가 이제는 음운화하여 범주적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청자에 의해 범주화된 성문폐쇄음은 그 음향적 단서를 증대시키려는 경향에 따라 유기음화한다. 이들의 효과는 모든 경계를 무성화시킴으로써 운율단위의 경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현상이 유추적으로 확장된 결과 어미의 두음이 유기음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어간말 경계의 유기음화, 짜내기 소리, 성문폐쇄음, 음운화, 음향적 단서 강화

【Abstracts】

Remarks on the stem-final laryngealization

Park, Jong-hee · Kwon, Pyong-ro

In this paper We hypothesized an addition of [constricted glottis] feature into the prosodic domain boundaries. These boundaries were generally recognized as weakening positions and so a kind of phonetic pressure was operated at this position naturally. As we know devoicing or glottalization was acted to make a non-modal voicing which was irregularly vibrated and constricted glottis incompletely. Because the gradient glottalization was being frequently produce, the articulation of a creaky voice would categorically become to phonologize by a hearer. After this level of phonologization to glottal stop, the hearer would like to reinforce a acoustic cue in order to increase the identity of devoicing at the prosodic boundaries. By widening a vocal cords and increasing the rate of air stream under the subglottis, the aspiration would be happened. This articulatory gestures and phonologization were analogically expanded into the boundaries of grammatical units that is stem final elements.

Key word : aspiration, stem-final position, creaky voice, glottal stop

이 논문은 2012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2년 7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